

투데이 칼럼

직장 내 관계를 좋게 하는 스피치 생활

직장이나 조직 등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능력이다.

직장, 단체, 비즈니스 등에서 관계를 좋게 하는 스피치 생활이 매우 중요하다.

하버드대학에서도 실직자, 실패자 등에게 설문조사 하였더니 1순위가 관계능력구축이 문제였다고 발표되었다.

여기서 관계를 좋게 하는 기법을 알아본다.

첫째, 상대방과 공통점을 찾는 다. (관련성의 화법)

'아~ 그거 저도 무척 좋아합니다. '저하고 취미가 같군요' 등과 같이 관련성을 강조한다.

둘째, 상대와 친밀감을 강조한다. (감성의 화법)

예술적 감각 등으로 친밀감을 강조하면 관계가 좋아진다.

'오늘 하는 일 힘들죠. 끝나고 식사 함께 합시다' 등과 같이 감성을 전한다.



김양욱

전주교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셋째, 상대방의 의견에 긍정적 인 동의를 한다. (공정화법)

자기 의견에 동의하면 상대가 좋아하게 되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 사람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등과 같이 상대에 동의하는 불한다.

넷째, 상대방에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칭찬화법)

'아!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역시! 대단합니다.' 등으로 상대를 칭찬한다.

다섯째, 상대에 관심과 능력을 인정하는 표현 말한다. (인정화법)

'어제 늦게까지 일하셨네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인정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

여섯째, 동료의식을 표현한다. (호감의 화법)

'우리는 한 배를 탄 셈이잖아요. 힘 좀 내세요!' 같은 화연, 지연 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일곱째, 이미지 관리 잘한다.

(이미지 화법)

평소 행동, 말을 조심하고 자기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막말하지 말고 상대가 좋아하는 행동할 때 관계는 좋아진다.

여덟 번째, 나 전달법을 사용한다. (나 전달화법)

상대에게 이야기 할 때 나의 느낌과 감정을 잘 구성하여 전달한다.

자신의 감정과 내용이 상대에게 기본 상하게 하는지 잘 분석한다.

'시간 좀 지켜라' 보다 '너를 기다리다가 내가 불안을 못 봤다'로 표현하면 충고를 하지만 상대가 기분이 별로 나쁘지 않다.

아홉 번째, 항상 겸손한 말투로 말한다. (겸손화법)

평소 대화는 부드러움이 강한 말투보다 효과가 좋다.

항상 겸손함을 보일 때 상대는 거부하지 않는다.

사설

전주 재개발 사업

최근 들어 갈수록 전주 원도심 주거 환경이 변하고 있다. 전주의 원도심에는 낡고 오래된 주택과 빈집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안락한 전주시 주거 환경의 큰 변화다. 최근 전주에 문을 연 어느 아파트 단지 견본주택에는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설 정도로 분양 소식에 관심이 뜨겁다.

전주시 중노숙동 기자촌 재개발 사업은 2천2백여 가구의 대규모 단지다. 최근 전주에서 분양을 하거나, 입주한 공동주택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견본주택 개방에 이어 1천4백여 가구를 모집하는 일반 분양도 시작된다.

전주는 넓은 주택이 많고 공급이 적었던 지역이다. 그러다 보니 신축에 대한 관심이 높고, 특히 높은 상황이라서 분양은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청과 한옥마을이 있는 옛 도심 주택가에도 아파트 건설이 잇달아 추진된다.

기자촌 재개발에 이어 인근 종광대 재개발도 5백30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설이 추진된다.

현재 매장 유산 발굴 조사 등이 마무리됐다. 주변 상황당 재개발 구역도 추진위원회 꾸려져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소규모 주상복합아파트 건설도 잇따르고 있다.

모두 3천 가구가 넘는 신규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도심의 거의 모든 건축물은 조성된 지 30~40년이 경과했다.

도시환경 개선 요구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상지를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전주 원도심 재개발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주거 여건 개선이나 역사 유적 복원과도 어떤 조화를 이룰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체포 당시 촛불 시민들

국민들은 대통령이 체포되는 역사적 장면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현직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15일, 새벽으로 예고된 영장 집행 시간 탓에 시민들의 하루도 평소보다 일찍 시작됐다.

전날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밤을 지새운 촛불 시민들은 윤 대통령으로 향하는 저지선이 하나씩 뚫릴 때마다 환호하며 가수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를 함께 불렀다.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 시민들도 새벽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 생방송을 지켜보거나 '뉴스 속보 새로 고침'을 반복했다고 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밀려오는 잠을 참으며 '체포 생방송'을 지켜봤다는 사람도 많다.

대통령이 체포된 이날 오전 10시 33분, 관저 앞 체포 촉구 집회에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날 14일 국회 앞에서처럼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렸다.

촛불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체포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했다. 사법 절차와 탄핵심판이 남은 데다, 내란 사태가 민주주의에 남긴 상처는 간단치 않다.

그가 파면되고 처벌받기까지 시민들의 관심과 견제는 계속돼야 한다.

이제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길을 고민해야 할 때다. 내란 수괴의 체포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체포를 촉구하기 위해 모였던 시민들은 "고생했다"는 인사를 나누며 일상으로 돌아갔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공수처를 용서할 수 없다"며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일부 대통령 지지자들이 한남대로에 놓거나 경찰 버스 밑으로 들어 가려 하는 소동이 있었다. 그러나 우려됐던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태국, 23일부터 결혼 평등법 시행... 동남아 최초



23일(현지 시간) 태국 방콕에서 한 LGBTQ+ 커플이 혼인 증명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태국은 23일부터 동남아 국가 최초이자 아시아 국가 세 번째로 동성 커플 결혼을 합법화했으며 이에 따라 전국 행정 사무소에서 동성 커플의 혼인 신고를 받기 시작했다.

"우리 딸에게 아무 일 없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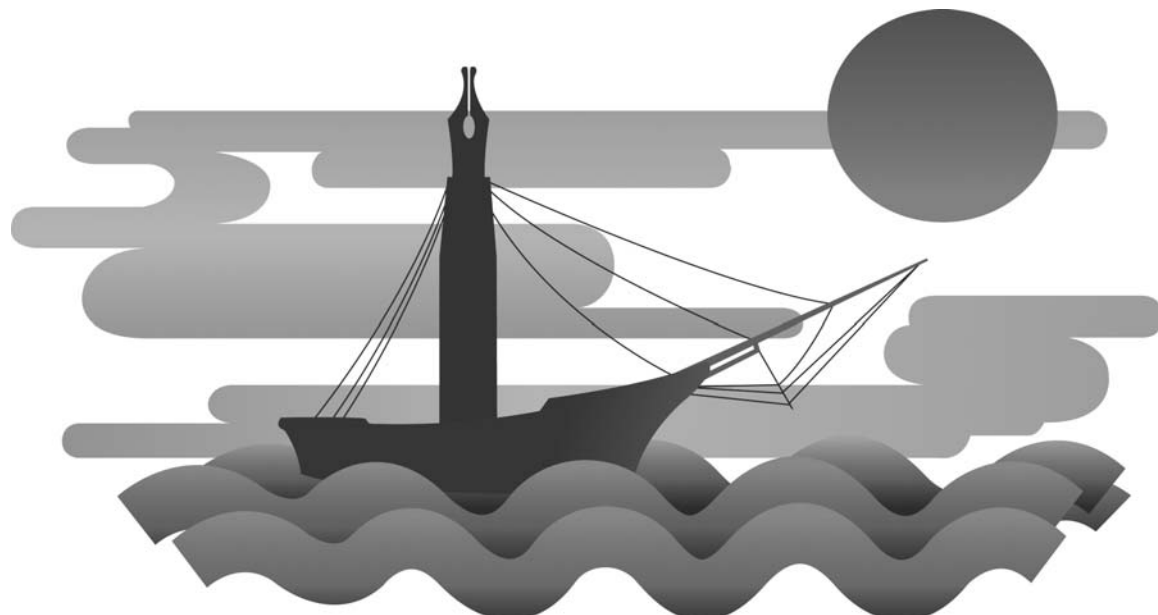
22일(현지 시간) 미 테네시주 내슈빌의 엔티오크 고등학교에서 총격이 발생한 후 가족 재회 장소에서 한 여성이 딸이 무사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현지 경찰은 이 학교 남학생이 권총을 여러 차례 발사해 학생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으며 총격범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